

ADSG 치과
50세 이상 초진 무료
7 Sylvan Ave.
Englewood Cliffs
201-301-3909
손형준 아브라함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ian, LLC
150-05 노던(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토 3:00 PM-8:00 PM
일 9:00 AM-2:00 PM
(718) 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 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회사설립 사업편의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2)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Ave
(718) 295-3252

리버데일 한의원
한 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 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 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 만성병 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준승 치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 Seafood Restaurant
445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 40\$ (세금포함)
(718) 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봉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 310-6990(C)

C2 EDUCATION
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
142 N Central Ave
914 946-2324 573-6706

COMMUNITY PAIN MEDICINE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140-21 32 Ave Flushing NY

아리랑 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윤 환 (Francisco)
영희 (Julie)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16W 32nd St Suite 1106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차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현(스테파노)치과
콜롬비아 치과대학교 졸업
엔트러스트(시립병원 앞)
(718) 426-4343 (주자민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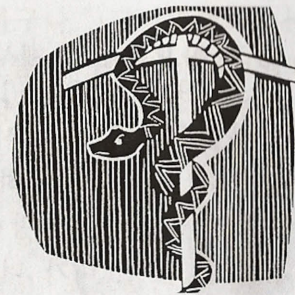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게,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제 1704호

2012, 3, 4

북부뉴욕 성남요한한인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 17,5)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장 : (914) 434-7084

Fax : (718) 405-0053



사순 제2주일

ㄹ 입당송

(시편 27(26), 8.9)

주님, 제 마음 기도하며 당신 얼굴 그렸나이다.

주님, 당신 얼굴 찾고 있사오니,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대영광송 없음>

ㄹ 제1독서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2,1-2.9-10-13.15-18)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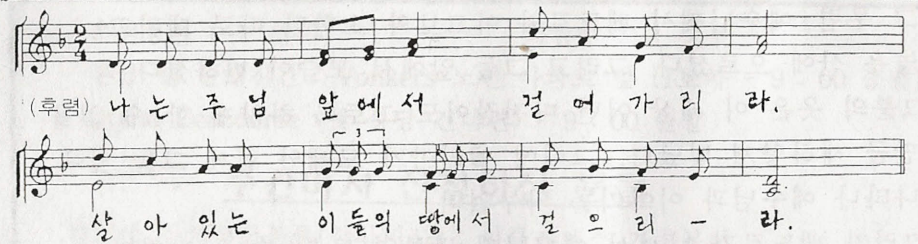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15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17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8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116(115), 10과 15.16-17.18-19 (●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1.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2.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3.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ㄹ 제2독서(하느님께서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34)

형제 여러분, 31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 하겠습니까? 32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34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ㄹ 복 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2-10)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든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 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ㄸ 영성체송 (마태 17,5)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3/ 4 8시	이 윤행	김 부균	방 경숙	정 태영
11시	김 철	양 명상	양 정남	윤 정숙
3/11 8시	홍 승표	김 민환	김 정옥	홍 명숙
11시	이 상식	성 기용	채 영진	김 춘선

복 사 : 이 종재 & 김 성준 김 찬 & 김 현민
 봉헌자 : 최고남&신희원 가족 다음주 : 주봉길&이강민 가족
 헌금봉사 : 하늘의 문 Pr 다음주 : 평화의 모후 Pr

운전봉사 : 조 영미 다음주 : 김 승우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00 출발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연도에 참석하신분들(감사미사) : 이클레멘스 가족봉헌
 이토마스아퀴나스[철우](생미사) : 이안젤라[효순] 봉헌
 신준우(연미사) : 양리카드로[경식], 조로물로[강희] 봉헌

성가

입당 : 십자가에 가까이 (성가 490)
 봉헌 : 기쁜 나의 집 (성가 454)
 성체 : 예수 마음 (성가 190)
 파견 : 수난 기약 다다르니 (성가 115)



교회 소식

(1) 사순절 시작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생활을 고쳐 나가도록 합시다.

- ※ 성금요일에 단식, 매주금요일 금육 (십자가의 길 매주금요일 8시30분)
- ※ 판공성사 : 3월28일(수) 저녁7시-10시까지 합동으로 여러 신부님 모시고 부활판공성사를 드립니다.

(2) 사순절 특별피정

이번주 5일(월)-6일(화) 저녁8시에 성가, 8시30분부터 10시까지 강의 (주영돈, 토마스 신부님)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 분 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꾸리아 월례회의및 간부교육

꾸리아 월례회의 및 레지오 단원교육이 11일(주일) 뉴욕 세나투스 단장님을 모시고 11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4) 성요셉 성월

3월은 성요셉 성월입니다. 성요셉 성인의 신앙을 본받아 가족이 서로 희생하여 성가정을 만들도록 저녁기도 후 성요셉성월(기도서 30P)를 바치도록 합시다.

(5) 2012년 교구청(Stewardship Appea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6) 가톨릭방송 후원의 밤

유일하게 동포를 위한 가톨릭선교 방송후원을 위한 행사가 4월12일(목)에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회장단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차 헌금(Peter's Pence)

오늘 교구연중 계획에 따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8) 본당 모임

- 서부브롱스 맨하탄 구역회가 오늘(주일) 오후4시 이상식(바오로) 구역장님 (347) 872-5316 댁에서 에 있습니다.
 - 동부 웨체스터 구역회가 이번 주 10일(토) 저녁8시 장윤희(알폰소) (914) 523-9887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중부 웨체스터 구역회가 11일(주일) 저녁6시 조용국(요한) (914) 673-4731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대건회 월례회의가 11일(주일) 11시미사후 센터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많은참석 바랍니다.
 - 신자주소록 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 되신 분이나 빠지신 분은 본당 뒤편에 있는 용지에 적어주시면 새 주소록에 실어 드립니다.
- * 이번달(3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다음달(4월)은 중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704.00(제외수요일\$652, 성모피정\$508 포함)

감사헌금 : \$100 (스포츠댄스팀)

교 무 금 : \$1,030.00

이종언(3) 변대수(1-3) 최인숙(1-6) 김문자(3)

양부용(1-5) 한창해(2) 김관희(3) 김태복(1-2)

손대연(1-2) 민중기(1-6) 윤인순(2)

Stewardship Appeal : \$270.00 누계 : \$6,140.00

변대수 최인숙 손대연 민중기 김태복 김윤기

나눔도 배워야...

내가 아는 집 아이가 축구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다. 아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가 혼자서 자라면서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인지 축구를 하면서도 공을 다른 아이들과 나눌 줄을 모르고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선생님께서 주의를 몇 번 들었고, 결국은 아이가 축구를 싫어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구나 하면서 무슨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는 기분마저 들었다. 언젠가 한국 군인훈련소에서 훈련병을 지도하는 군인한분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요즘 아이들 훈련시키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형제가 없이 자라서 나눌 줄을 몰라요 하시던...내가 어렸을 때, 5-60년 전에는 집안에 형제들이 많았고, 게다가 사촌, 조카 등등 집안에는 어른, 아이들이 항상 붐볐다.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치 내 것이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나누었다. 껌 한 개도 생기면 누구와 반쪽씩 나누어서 씹었으니...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 내가 왜 내 것을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주위에서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나눌 줄을 모른다. 뭐 보잘것 없이 보이는것도 내거야 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그만이다. 한편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항상 나눔을 강조하면서 무슨 나눔의 캠페인 같은 것을 펼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숙제를 하듯이 참여를 한다. 나눌 줄을 모르고 자라서 그런가? 어쨌든 나눔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것 같다. 아마도 나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될 때 더 빛이 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나눔도 배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미 프로 농구계에서는 린 이라는 선수가 화제의 인물이다. 린은 그 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침체되어가던 농구계를 부흥시킨다고 한다. 린이 그렇게 화제의 농구선수가 된 것은 본인이 볼 슛을 잘하기도 하지만, 다른 선수들과 볼을 잘 나누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볼을 잡으면 자기가 슛해서 자신이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린은 자기가 공을 잡았어도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어서 그 다른 선수로 하여금 공을 슛하도록 한다고. 그래서 린을 더 높게 평가한다. 린은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나눌 줄을 아는 선수이다. 어쩌면 린이 신앙심이 굳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게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하나를 둘로 나누면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둘이 되는 것이라고. 우 몽은